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월 18일(목) 다음과 같이 산부인과 호소문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및 국회의원과 언론에 전달하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호소문

2010년 새해가 밝았지만, 저출산의 그늘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산모도 없고, 의사도 없는 저출산 시대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지만 이제는 “산모가 있어도 낳을 곳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언론들도 앓다 투어 저출산의 그림자와 산부인과의 암울한 현실을 신년 초부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중 최근에 조선일보는 ‘아이 낳기가 겁난다’는 제목으로 산부인과 문제의 심각성을 기획시리즈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현재 산부인과는 야간진료, 응급상황 많은데 건강보험 수가는 크게 낮다, 분만실은 환자 많아도 적자이고, 매년 전국에서 80곳씩 문닫고 있는 것이 산부인과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참담하고 암울한 사회적 현실 앞에서, 산모들이 건강하게 태아를 분만 할 수 있는 진료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아이 낳을 수 있는 출산 인프라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산부인과 분만실은 2001년 1570곳에서 2008년 935개로 7년 사이 635개가 줄어, 매년 약 90여 곳의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낮은 의료보험 수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 경영 악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엄청난 댈친격으로 각 지자체 산하 보건소는 산전진단과 철분제 처방 등 산모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그나마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진단을 받던 환자들을 빼앗아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개인 산부인과 병원은 경영이 악화되고 황폐화되어 분만실 문을 닫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산모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이 부메랑이 되어 분만실 없는 산부인과 병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2009년 6월, 정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산부인과의 수가나 산부인과는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곳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약 5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산모는 출산 때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등 산모 건강권이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 됐습니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산부인과 분만실이 줄어들면 산모 건강권도 보장이 안 됩니다!

둘째, 매년 전공의 지원 미달로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산부인과 분만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현재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매년 정원의 50~60% 정도이고 이마저도 매년 약 10~20여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부인과의 전문의 배출 수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250여명 정도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해 2010년에서 108명이었고, 향후 2011년에는 90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대한산부인과학회 조사자료 인용)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 수련 중인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20%(20명 미만)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야간 분만실 당직이나 부인암 환자수술 등 힘든 일을 할 남자 산부인과 의사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의료수가, 높은 의료사고 비용, 저출산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의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소위 국공립병원의 비인기과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원하는 지원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 수당은 민간 병원 전공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수련 보조금 때문에 비인기과에 지원할 의사는 많지 않고, 설령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했다 손치더라도 그런 젊은 의사들이 나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실행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수가를 개선해야 합니다

산부인과는 분만의 특성상 응급 수술이나 야간 분만 등이 많고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 등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분만이나 수술의 수가는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연분만의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는 최저 20만5천원으로 맹장수술의 진료수가 27만 4천원 보다 적습니다. 이는 일본과 미국 국민자보험인 메디케어 수가의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이니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산모들이 출산 후 이용하는 산후 조리원이나 한약 복용, 제대혈 보험 등에 쓰는 돈은 100~200만 원이 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만을 해야 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자괴감에 빠지기 충분합니다. 비단 분만비만 낮은 것이 아닙니다. 산부인과 진료수가는 전체적으로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의식수준이 선진화되어 의료에 대한 기대치는 선진국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수가로 인한 병원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국민과 산부인과 의사 사이의 괴리감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산부인과 전 회원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 수가뿐 아니라 산부인과의 전체적인 진료 수가를 인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외과나 내과에서 시행되는 직장수지검사는 보험이 인정되는 반면에 산부인과 골반수지검사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산부인과 수술 수기도 다른 나라, 다른 진료 과에 비교해 현격히 낮습니다. 비인기과인 흉부외과와 외과는 수가를 100%와 30%씩 각각 인상을 해주었으나 산부인과는 여전히 수가 인상에 있어서 제외되어 이미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았고 남아 있는 병원들도 고사 직전에 처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산부인과의 수가를 흉부외과나 외과처럼 부디 대폭 인상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0년 2월 1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회 장 조태호

이사장 박용원

학회소식

대한의사협회 주최 프로라이프 활동 관련 의로계 간담회 참석

- 일자 및 장소: 2010.2.16(화) / 서울팔레스호텔 2층 다봉
- 참석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임원진,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임원진
- 안건: 프로라이프 활동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주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참석

- 일자 및 장소: 2010.2.19(금) / 프레지던트호텔 18층 산호홀
- 참석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임원진,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임원진, 종교계 대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단체대표 등 20인
- 안건: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회협의체 구성 필요성 공유, 활동방안 논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국회의원 전현희/국회 국민건강 복지포럼 주최 <산부인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현안 간담회> 참석

- 일자 및 장소: 2010.2.25(목) / 국회본청 귀빈식당
- 참석자: 대한산부인과학회 임원진,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임원진,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 안건: 산부인과 저수가, 기피전공,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및 기타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 제 45회 정기총회 참석

본 학회를 대표하여 사무총장인 연세의대 김상운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공식적인 안건 외에도 학술지 국제화지원 시범사업 및 회원 학회 홍보 간담회 등 지원 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의 안내가 있었다.

- 일자 및 장소: 2010.2.25(목) /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 참석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기총회 대의원
- 안건: 1) 2009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안)
2)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3) 정관 및 규정 개정(안)
4) 임원(차기회장, 감사) 선출

대한의사협회 주최 인공임신중절 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참석

- 일자 및 장소: 2010.3.5(금) / 서울팔레스호텔 3층 오키드룸
- 참석자: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대한산부인과학회 임원진,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임원진
- 안건: 보건복지가족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 발표관련 토의

제 4차 심사위원회 개최 (2010.2.16)

의료사안 6건 검토 완료

대한산부인과학회 명예회원 추대의 건 (2010.03.09)

지난 3월 9일(화) 개최된 대한산부인과학회 제 3차 상임이사회의에서는 대만의 Tigris Tzu-Yao LEE 명예교수(National Taiwan University)와 홍콩의 Pak Chung HO 교수(The University of Hong Kong)를 대한산부인과학회 명예회원으로 인준하였다. 본 학회 명예회원 수여식은 금년 9월말 개최되는 제 96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연맹(AOFOG) YS Chang Award 제정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연맹(AOFOG)은 본 학회 명예이사장이자 서울의대 명예교수인 장윤석 교수의 이름을 붙인 'YS Chang Award'를 제정하였다. 본 상은 2011년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 22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연맹 학술대회(AOFOG 2011)를 시작으로 2년마다 있는 매 AOFOG에서 수여된다. AOFOG의 기관지인 JOGR에 과거 2년간 게재된 생식내분비 분야의 최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되며 수상자에게는 \$3,000의 상금과 Silver Medal이 수여된다. 본 상의 재원은 장윤석 명예교수가 우선 기부한 5천만원으로 마련되며,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내에 설립되는 YS Chang Foundation을 통하여 조달될 예정이다.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AOFOG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24개국 산부인과 학회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제단체로 장윤석 교수는 1995년에는 종신명예직인 AOFOG Fellowship을 수여받은 바 있으며 2007~2009년에는 AOFOG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YS Chang Award는 AOFOG 역사상 개인 이름이 처음으로 부여된 의미 있는 상으로 그동안 불임분야에서 오랜 노력을 기울여 온 장윤석 교수 개인은 물론 한국 산부인과학계에도 매우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다.

보험소식

1. 지난 2월 10일(수) 개최된 제 3차 보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 담당자를 초청해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산출방법 및 구축사례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본 회의를 통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위원 및 CPEP 신규 위촉위원은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보험 수가 등재요령을 숙지하였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심평원의료)의 철분제제와 칼슘제제 비급여전환 검토요청에 대하여 이는 필수약품이라는 학회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제 3회 산부인과 신의료기술 및 의료수가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결정
 - 일시 및 장소: 2010년 7월 4일(일), 오후 1시~5시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3. 신포괄수가 의협 4차 자문단회의 개최(2010.2.25)
본 학회 보험위원장인 이근영 교수(한림의대)가 대한병원협회를 대표해 참석하였으며, 보험위원인 류기성 교수(가톨릭의대)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대표위원인 윤석완 원장(성원산부인과)이 참석하여 신포괄수가 자문단 소위원회 구성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공지사항

2011년도 제 54회 전문의고시 응시자격을 위한 논문심사기준 안내 (2010.2.25)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1년도 제 54회 전문의고시 응시자격을 위한 논문 심사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다. 2011년도 산부인과 전문의 고시 응시 예정자 여러분(현 4년차)께서는 착오없이 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산부인과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인증을 위한 논문 심사의 기준

※ 산부인과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인증을 위한 논문심사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효력은 2011년도 제 54회 전문의고시에 발생함.

1. 산부인과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인증을 위해서는 수련과정 시작 후 다음 학술지에 발간된 세 편의 논문 별책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논문 중 적어도 한 편은 제 1저자로 작성된 논문이어야 한다.

- 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 나) Journal of Women's Medicine
- 다) SCI(E)에 등재된 학술지
- 라) Index Medicus 에 등재된 학술지
- 마)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 바) KoreaMed에 등재된 학술지
- 사)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인정한 다음의 학술지
 - 대한골다공증학회지 -대한골대사학회지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지 -대한비뇨부인과학회지
 -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지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지
 - 대한생식의학회지 -대한주산의학회지
 - 대한태아의학회지 -대한폐경학회지

아) 이외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에서 심사 후 결정하며, 위의 기준에 해당 없는 대학교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인정되지 않음

2. 제출된 논문 중 적어도 한 편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또는 Journal of Women's Medicine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 5월 31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함.

3. 게재예정인 논문의 경우 간행학회에서 공식 발행(서명·날인)한 게재 예정증명서와 게재예정 원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및 Journal of Women's Medicine의 게재예정 증명서 발급은 해당연도 5월 31일 이전에 접수되었으며 <수정 없이 가>로 게재허가 받은 논문에 한함)

International Young Doctors' Exchange Program 후보자 추천 안내

대한산부인과학회(KSOG), 일본산부인과학회(JSOG), 대만산부인과 학회(TAOG)는 매해 한 나라씩 차례로 International Young Doctors' Exchange Program을 주관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행사는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미래 산부인과학 분야의 젊은 리더를 양성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순서에 따라 2010년에는 한국에서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 행사는 제 15차 서울심포지엄 및 제 96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개최기간 중에 진행되며 총 20개의 발표 세션이 준비될 예정이다. 주최국인 한국에서 10명, 초청국인 일본과 대만에서 각각 5명의 발표자가 참석하며 관련분야의 초록발표 및 토론시간을 갖게 된다(발표와 토론에 약 10분 소요). 발표가 채택된 초록은 이전에 국내외 타행사에서 발표되거나 출판된 적이 없어야 한다.

-행 사 일 정-

제 15차 서울심포지엄 및 제 96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enue	그랜드힐튼호텔서울 컨벤션센터
Date	2010년 9월 30일~ 10월 2일

International Young Doctors' Exchange Program

Venue	그랜드힐튼호텔서울 컨벤션센터
Date	2010년 10월 1일

※ 후보자 명단 추천 일정은 아래와 같다.

대한산부인과학회 International Young Doctors' Exchange Program 후보자 추천 방법

대한산부인과학회는 International Young Doctors' Exchange Program 관련하여 응시자격과 초록접수기간을 홈페이지(www.ksog.org)에 공지하고 각 의과대학 산부인과교실 주임교수님 및 수련병원 주임과장님께 2010년도 6월 30일까지 학회 이메일(office@ksog.org)을 통해 추천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관련사항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국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Tel:02-3445-2262, Fax:02-3445-2440).

*지원 자격

1. 제출마감: 2010년 6월 30일
2. 제출내용: 추천후보자 성명, 소속, 영문초록, 영문 CV
 - ※ 해당 추천자가 직접 이메일 전송시 반드시 주임교수/주임과장을 참조로 넣을 것
3. 제출방법: e-mail 접수 office@ksog.org
4. 접수제목: 대학명/병원명-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영탁터 프로그램 신청
5. 공식언어: 영어(발표와 토론은 모두 영어로 진행됨)

자 격	2010년 10월 참석시 4년차 또는 Fellow
인 원	총 10인 추천예정

행사소식

2010 대만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 일시: 2010년 3월 13일(토)~14일(일)
- 장소: Windsor Hotel, Taichung, Taiwan

제 62차 일본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 일시: 2010년 4월 23일(금)~25일(일)
- 장소: Tokyo International Forum, Tokyo, Japan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모임

- 일시: 2010년 5월 27일(목) 오후 7시
- 장소: 경주(추후 공지)

제 43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 일시: 2010년 5월 28일(금)~29일(토)
- 장소: 경주 현대호텔

제 43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2010.5.28(금)~29(토)
경주현대호텔

5월 28일(금)

12:00~13:00	등 록	
13:00~13:05	인사말	조태호(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
13:05~13:10	인사말	박용원(연세의대/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13:10~13:30	축 사	안홍준(국회의원)

모체태아의학

13:30~13:50	양수량 이상 산모의 처치	홍성연(대구가톨릭의대)
13:50~14:10	임신 분기별 유도분만	최석주(성균관의대)
14:10~14:30	분만 중 태아심음감시에 대한 이해	박미혜(이화의대)
14:30~14:50	임신 중 감염 및 처치	박종신(서울의대)
14:50~15:10	Discussion & Coffee Break	

초청강연

15:10~15:50	의료를 통해서 본 북한의 현실	인요한(연세의대)
-------------	------------------	-----------

부인종양학

15:50~16:10	부인암 FIGO 병기체계(2008)	김영태(연세의대)
16:10~16:30	HPV 백신: 현재와 미래	허수영(가톨릭의대)
16:30~16:50	임신 중 부인암 처치	김용만(울산의대)
16:50~17:00	Discussion	

특별강연

17:00~17:50	유머로 유혹하라	신상훈(서울종합예술학교)
18:30~	만찬	

5월 29일(토)

생식내분비학

09:30~09:50	무월경의 진단적 접근	이정호(계명의대)
09:50~10:10	다낭성난소 증후군 환자의 불임치료	나용진(부산의대)
10:10~10:30	폐경기호르몬 치료의 오해와 진실	김탁(고려의대)
10:30~10:40	Discussion	

초청강연

10:40~11:00	TBD	은성호(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11:00~11:20	Coffee Break	

일반부인과학

11:20~11:40	골반염 치료의 최신 지견	조문경(전남의대)
11:40~12:00	요실금 수술 후 발생한 배뇨장애의 처치	구천희(가천의대)
12:00~12:20	유방질환에 대한 적절한 접근방법	유지훈(울지의대)
12:20~12:30	Discussion	